

05.09.2010 (주일)

순종하는 자, 공경하는 자, 양육하는 자 (엡 6:1-4)

교육이란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로는 가르칠 ‘교’ 기를 ‘육’으로 가르치어서 기른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education은 라틴어 educare 에서 나왔는데 ex(from, out of, from within) + ducere(to lead, conduct, guide)의 합성어로 자라게하다, 기르다, 연습시키다, 이끌다 (to bring up, rear, train, led out)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의 두 철학이 교육이란 개념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서 나오게 해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주며 느끼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에는 자녀도 들어있고 부모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저 같이 산다고 해서 가정이 아니라 가르칠 줄 아는 부모, 배울 줄 아는 자녀의 자리가 잡힐 때 가정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엡 6:1-4을 정리하자면 세가지로 순종하라, 공경하라, 양육하라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첫 순서가 순종입니다. 우선, 먼저,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로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1)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엡 6:1)! 자녀의 자리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라는 헬라어는 후파코 우오(hupakouo)로 후포(hupo - by, under)와 아코우오(akouo - to hear, listen)로 직역하면 아래서 듣는다는데(to hear under) 신중하게 듣는다,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to listen attentively, conform to authority, be obedient).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서 뭔가 느끼고 배운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배움이 신중하게 듣는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백만명에 이르는 불쌍한 10대 소녀들이 사창가에서 시달리다가 병들어 죽거나 폐인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10살 미만의 아이를 사창가에 파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헐박하고, 핍박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 뜻은 ‘믿음으로’ 부모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에 옳다는 것입니다! 창 12:1에 나오는 믿음을 보세요!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엡 6:2)! 공경하라는 헬라어는 티마오(timao - to prize, to revere, honor)로 귀히 여기다, 존경하다, 공경하다는 뜻입니다. 장수하는 비결이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데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 대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은 증인들입니다. 믿음으로 부모를 섬긴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주님은 요 12:26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귀히 여기는 단어가 ‘티마오’로 공경한다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요 8:49 볼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여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했는데 여기서 공경한다는 단어가 ‘티마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과 양육 사이에는 공경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길 때 모든 일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립니다 (엡 6:3, 출 20:12)!

(3)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 6:4)! 신앙으로 대해야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인간 생각으로 자녀를 다루면 서로 화나게 되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비현실적인 비교나 기대, 비난과 학대가 육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주 안에는 은혜로 하는 교양과 훈계가 있습니다.

교양은 파이데이아[paideia - from pais(infant)]로 젖먹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가 되도록 연단과 훈련을 말합니다 (discipline, training). 훈계는 누떼시야(nouthesia)로 마음을 말하는 누스(nous)와 두다 또는 놓다라는 뜻의 '티떼이미'의 합성어로 마음에 새기도록 훈계로 주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tithemi(to place, lay, set)].

잘못된 훈계는 자녀에게 평생 상처가 되지만, 바른 훈계는 자녀를 살리는 생명길이 됩니다 (잠 6:23, 13:13)! 믿음으로 배움이 없고 말씀으로 가르침이 없는 곳에는 영원한 어둠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날 갑자기 부모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부모도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자녀가 주 안에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